완주산단 근로자 로컬투어 '완주 소풍'

완주문화재단, 'XR 스마트버스·공예체험 결합' 이동부터 콘텐츠로 확장된 오감형 투어 진행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이 운영한 완주 근로자 참여형 로컬투어 프로그램 '완주 소풍'이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완주 산업 근로자와 가족,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완주의 일상과 문화 자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앵콜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5회차 운영되었으며, 회차별 30~40명이 참여해 높은 신청률과 참여도를 기록, 지역 대표 참여형 로컬투어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완주 소풍은 고산면, 상관면, 구이면 등 주요 권역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단순 관람을 넘어 문화유산, 자연경관, 마을 이야기를 결합한 도보형 탐방으로 구성되었으며, 로컬 큐레이터의 해설을 통해 참여자들이 지역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앵콜 프로그램 완주 소풍+는 XR 스마트버스를 도입해 이동 과정 자체를 콘텐츠로 확장했다. 버스 내 실감형 XR(확장현실) 콘텐츠를 통해 완주의 역사와 산업, 문화관광 자원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며 몰입도를 높였다.

완주문화재단이 운영한 완주 근로자 참여형 로컬투어 프로그램 '완주 소풍'이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또한 △지역 문화 해설 △마을 탐방 △로컬 식사 △공예 체험을 결합해 '걷고·보고·체험하는' 오감형 로컬투어로 운영되었다. 공예 체험은 지역 예술가와 협업하여 전문성과 지역 연계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완주 소풍은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험형 로컬투어로, 지역을 새롭게 인식하고 문화 향유를 일상으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참여자들은 "익숙한 완주를 여행자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게 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철우 완주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완주가 가진 문화자원의 가능성과 확장성을 확인한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참여형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으로 떠나는 특별한 4월

'여행가는 달' 맞아 혜택 가득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여행가는 달' 캠페인과 연계해 다양한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관광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숙박 할인과 관광지 할인,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됐다.

도는 도내 숙박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1박 시 최대 3만 원, 연박 시 최대 7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권은 주요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선착순으로 배포되며, 지역 관광 수요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는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및 할인, 숙박료 및 관광택시 할인, 관광 인증샷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투어패스 통합권 20~30% 할인 △관광기념품 100선 20%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시군별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남원 관광택시 및 달빛정원 50% 할인 △순창 발효테마파크 입장료 30% 할인 △고창 토굴발효 체험 및 승마 프로그램 할인 △부안 관광택시 50% 할인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가 마련됐다. 아울러 임실군과 부안군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SNS 인증을 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참여 이벤트도 진행된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여행가는 달을 맞아 다양한 혜택과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며 "많은 관광객이 전북을 찾아 특별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립박물관, 석지 채용신 화조화 특별 전시

정읍시립박물관이 벚꽃축제 개막일인 오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조선 왕의 얼굴을 그린 어진화사 석지 채용신의 화조화를 조명하는 특별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 1층 제1상설전시실에서 열린다. 인물 초상을 통해 시대와 사람을 살펴본 2025년 전시에 이어, 올해는 꽃과 새를 소재로 한 화조화를 중심으로 채용신의 또 다른 작품 세계를 조명한다.

전시에서는 모란, 매화, 소나무, 공작, 학, 금계, 앵무새 등 전통 회화에서 길상과 복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각 소재는 절개·지조, 부귀·번영, 장수·영원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자연의 모습을 빌려 사람들의 바람을 표현해 온 전통 회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특히 초상화가로 널리 알려진 채용신이 자연을 통해 이러한 상징을 어떻게 화폭에 풀어냈는지 엿볼 수 있다. 인물을 통해 시대를 기록했던 그가, 꽃과 새를 통해서는 사람들의 소망과 정서를 섬세하게 담아냈다. 아울러 전시 기간 중 화조화에 담긴 상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 특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전시는 정읍의 대표 서화가 석지 채용신의 새로운 작품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자연에 담긴 상징과 의미를 통해 선조들의 바람과 정서를 느끼고, 정읍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민이 만든 축제, 기록으로 남기다'

전북자치도, '제6회 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은 민간기록물을 발굴·보존하기 위해 '제6회 전북특별자치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이 만든 축제, 기록으로 남기다'를 주제로 전북에서 열린 지역·마을·문화예술·학교 축제 등 다양한 축제 관련 기록물을 수집한다.

아울러 축제 기록물 외에도 도 및 시군 주요 정책과 사업, 전북의 옛 모습, 일기장과 각종 장부 등 일상생활 기록물까지 폭넓게 접수한다.

접수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출 대상은 문서, 포스터, 행사기념품, 입장권, 상장, 사진 등 모든 유형의 기록물이다.

참여는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또는 도 기록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20명의 입상자를 선정하며, 대상 1명(100만 원), 최우수상 2명(각 50만 원) 등 총 4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도지사 상장이 수여된다.

수집된 기록물은 향후 하얀양옥집과 도청에서 전시회를 통해 공개되며, 디지털화 과정을 거쳐 기록관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5차례 공모전을 통해 총 1,232점의 민간기록물을 수집했으며, 조선시대 과거시험 답안지(1729년), 일제강점기 징병검사 시행문(1944년), 암행어사 상서문(1851년) 등 다양한 기록유산을 보존해왔다. /이만호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11일 K-국악스테이지 '춤의 정원'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K-국악스테이지 '춤의 정원'을 선보인다.

이야기로 만나는 궁중춤 '춤의 정원'은 궁중춤예술연구원이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공연으로, 정중동(靜中動)의 미학을 바탕으로 궁중정재 특유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단아한 멋, 품격 있는 춤사위를 무대 위에 담아낸다.

공연은 여령이 이끄는 흐름을 따라 춤이 하나의 정원처럼 펼쳐지는 구성으로 △국가무형유산 학연화대합설무 △처용무 △무고 △검기무를 비롯해 △여령 들어다보기 △춘앵전 △포구락 등 다양한 궁중정재를 선보이며 궁중춤이 지닌 예술적 깊이와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전한다.

공연을 이끄는 최경자 예술감독은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를 역임했으며, 국가무형유산 학연화대합설무·처용무·승전무 이수자이자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호남산조춤 이수자로, 궁중정재의 전통과 미학을 오늘의 무대 언어로 확장해 오고 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 전화(063-620-2329) 또는 카카오톡 채널('국립민속국악원' 친구추가 후 상담원 연결)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